

# ‘부처님의 법, 진리의 빛’ 온 세상에 화현하리 (化現)



오심스님의 삼보사찰 천리순례길에서...

## ②실상사에서 해인사까지

### 법보의 해인사

누가 이룸하여 해인(海印)이라 했는가?  
누가 그것을 국보라 했는가?  
누가 그것을 경전이라 했는가?

그것은 마음의 도장이었고  
그것은 만고의 진리리라.

하나의 빈틈도 없이 확실했고  
하나의 흐트러짐 없이 과학이었다.

한 명 군인의 결연함이 장경을 지켰고  
세상의 백성 신심으로 만들어졌고  
만승의 힘으로 지금껏 이어왔다.

이제는 만들 수 없으니 아름다운 법보여.



순례길 곳곳에 고마운 응원의 마음들이 한둘씩 모여져 가는 길이 기도처가 된다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이라는 염원들고 세 가지 보물 찾아나선 순례단의 한걸음 한걸음이 무거운 책무로 와 닿는다

벌써 보물을 찾으러 삼보사찰 천리길 순례단이 첫걸음을 댄 지 열흘이 지났다. 국난극복과 불교중흥이라는 소명을 품고 상월선원 회주 자승스님이 이끄는 삼보사찰 천리길 여정의 절반이 진행됐다. 열 번의 아침과 밤을 맞이하며 쌓여가는 불심과 함께 걷는 도반들의 신뢰와 보물을 찾으려는 의지는 신심이 되어 여정을 더욱 값지게 한다. 이 불법승(佛法僧) 세 가지 보물을 찾아가는 과정도 보물처럼 느껴진다.

열흘 동안 누적 223km의 거리를 오롯이 두 발에 의지해 걷는 원정대의 모습을 보며 “부처님께서 처음 인도 쿠시나라까지 맨발로 걸었을 때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하는 상상의 나라를 펼쳐본다.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부처님 당시의 순례와 비교한다면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감히 그 위대한 구도와 포교의 정신은 닮고 싶다는 순수한 열정은 그대로 피어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보물, 부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법보사찰 해인사로 향하는 발걸음은 남달랐다.

10월6일, 남원을 걸쳐 지리산이 품고 있는 실상사에 도착했다. 섬진강보다는 달하지만 산사의 공기가 차가워 격정했는데 오후 들어 날씨가 맑아지고 일교차가 심해 차라리 선선한 날씨가 그리워진다. 산과 숲을 걷다보니 시시때때로 날씨 변덕이 심하다. 찰라마다 변하는 기운이 우리네 생활 같다. 변화무쌍한 날씨에 같이 마음도 편승해 간다면 내가 누군지 어디에 왔는지 모르고 의미없는 삶이 되지 않을까. 오늘도 산천은 이렇게 나에게 가르침을 준다.

함양에서 지안재를 넘는 7일 째를 일정을 맞이한다. 걸어야 하는 거리는 30km... 이번 일정 중 최장거리다. 평소보다 조금 더 걷는 거리라 몸이 힘들다는 신호를 보낸다. 비몽사몽 졸음이 오락가락하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깨어있는 조사스님의 말에 따라 화두를 잡아 본다.

출발 전 숲속에서 봉행한 새벽예불의 간절함을 가슴에 간직하니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숲속 조록 햇살이 부서지며 초록향기가 몸 내면에 스며드는 것 같다. 아침의 어스름한 여명이 밝아오자 경치가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이라는 염원을 안고 세 가지 보물을 찾아 나선 상월선원 회주 자승스님과 160여명의 삼보사찰 천리길 순례단이 실상사를 지나 해인사를 향하는 뜨거운 아스팔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가 하나 둘 눈에 들어온다. 이제 진짜 가을 경치가 완연하다. 옛 조사의 가르침 중 “깨어 있으면 하나하나가 부처로 보이고 곳곳이 다 극락”이라고 했던가! ‘사람도 광합성을 할 수 있구나...’ 라고 느끼며 그 에너지와 아름다운 경치가 힘든 여정에 안식을 준다. 그렇게 켜켜이 함양으로 향했다.

함양 용추에서 경남 가조까지의 여정으로 순례 8일차에 접어들었다.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진다.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이 순간 우리도 함께 자연의 한 부분이다. 그렇게 날씨에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누가 ‘누가 멈추면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하였던가! 걸으면서 찬찬히 살펴보니 세상의 모든 사물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자연이 들려주는 사연들이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진리다.

삼보사찰 천리길 순례단은 통상적으로 하루에 여섯 번을 쉬며 숙영지에 도착한다. 잠시 쉴 때 각자 챙겨온 간식으로 행군에 소모된 에너지를 비축한다. 그런 피곤은 식량도 옆에 연세가 많은 노스님이 계시면 함께 나눠 먹는다. 이 순례는 나누어 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눌수록 에너지가 배가되어 총만감을 준다. 물질적인 모자람이 정신적인 풍족함을 어찌 따라 올 수 있으랴... 나누는 기쁨 또한 이번 보물을 찾는 순례단의 큰 무기일 것이다.

내일 드디어 법보사찰 해인사 도착이다. 그전에 숙영지인 가조에서 순례단은 잠시 정비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 두 번째 보물을 맞이하기 위해 의복을 세탁하

고 정갈하게 두 번째 보물을 맞이하라는 주최 측의 배려인 듯하다. 양말이나 속옷, 수건 등 작은 옷가지는 그날그날 숙영지에서 빨래를 하지만, 이날 가조에서 잠시 쉬며 밀린 빨래도 하고 그 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강원 때부터 인연을 이어가는 오랜 지인 덕조스님(제주 약천사 주지)과 나눴다.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시절 함께 해인사에서 수학하던 이야기 꽃을 피우니 밤이 무르익어 간다.

10월9일 새벽4시, 경남 거창을 출발한 순례단은 7시간 행선(行禪)을 하며 법보사찰 해인사로 향했다. 오르막은 오르고 내리막은 달리니 탁 트인 합천의 들녘이 펼쳐졌다.

상월선원 만경결사 삼보사찰 천리길 순례단은 흥류동 계곡 맑은 물소리를 벗삼아 가야산 품에 안겼다. 가야산이 품에 들어오자 발걸음이 힘이 생긴다.

젊은 시절 2년 동안 수학했던 해인사... 그 시절의 추억이 새록새록 피어난다. 해인사 강원은 ‘스님들의 사관학교’라고 불릴 정도로 그 규율이 강하다. 수행하는데 힘은 들었지만 그만큼 추억도 많은 곳이다.

새벽부터 가야산 자락에 들어서니 심한 오르막 길이 순례일행을 반긴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오르막길... 거의 숨이 턱까지 올라와 더 이상 걷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 휴식시간이 주어졌다. 아침 11시, 순례단은 간단한 점심공양을 해결하기 위해 잠시 해인사 대표소에서 여정을 풀었다.

마지막 오르막 길인 ‘소릿길’을 오르니

숨소리가 가파진다. 그래도 관세음보살과 화두를 놓지 않고 길을 걸었다. 마음으로 되뇌이는 정근은 물소리 바람소리와 어울려 아름다운 화음이 되어 컷가에 맴돈다. ‘보물이 눈앞에 있으니 힘내!’라는 극락 건달바가 노래하는 것 같아 힘이 났다.

해인사 일주문부터 사부대중이 일렬로 서서 삼보사찰 순례단을 맞이하며 환호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걸고 금의환향한 국가대표선수단이 이런 마음이겠구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래, 우리는 국난극복과 불교중흥 발원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부대중의 대표가 아닌가!’하는 사명감이 더욱 굳건해진다.

해인사의 마당에 빨간 국화꽃으로 새겨진 ‘화엄경 범성도’를 따라 곧바로 팔만대장경의 경관 한자 한자에 부처님의 말씀이 새겨진 글자들이 도드라지게 춤을 추며 삼보사찰 천리길 순례단을 맞이하는 것처럼 내 마음도 환희롭다.

해인사 숙영지에서 여독을 풀며 가야산 해인사 하늘을 올려보았다. 별무리들이 반짝이며 오후의 일정을 축원해 준다. 한참 올려보니 북두칠성이 보인다. 예전에 보았던 그 별이다. 저 별처럼 내 초발심에 가졌던 그 순수하고 굳은 신심이 변하지 않기를 다짐해 본다.

지난 열흘 간 삼보사찰 천리길 순례단은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곡성, 구례, 전북 남원, 경남 함양, 거창, 합천까지 7개 시군을 지났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물

론 교구스님이 방문해 삼보사찰 천리길 순례단을 응원했다. 순례길 곳곳에 그런 고마운 응원의 마음들이 한둘씩 모여져 가는 길이 기도처가 된다.

길에서 합장하는 보살, 차에서 일부러 내려 합장 인사하고 다시 타고 지나가는 거사, 각 사찰마다 신도들이 힘내라고 응원하는 함성, 그리고 거리마다 걸려 있는 격려의 현수막들...

이런 현상들은 누구나 부처님의 원력으로 국난극복과 불교중흥을 펼쳐지기를 발원하는 마음을 한곳에 모으려는 원가가 되어 힘을 준다. 그들의 염원을 두 발에 옮겨 열흘 남짓 걸어진 순간순간의 여정이 아름답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행으로 보이며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이라는 염원을 안고 세 가지 보물을 찾아 나선 상월선원 회주 자승스님과 160여명의 삼보사찰 천리길 순례단. 함께 보물을 찾으려는 큰 뜻을 함께하는 원정대와 함께 걷는 한걸음 한걸음이 가벼이 느껴지지 않고 무거운 책무로 와 닿는다.

길에서 나시고, 길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길에서 가르침을 받으며, 길에서 열반에 드신 부처님! 그 분의 가르침을 길에서 다시 되새기는 이 길이 그래서 더욱 소중한 보물이다.

법보사찰 해인사가 품고 있는 팔만대장경에 일일이 새겨진 귀한 가르침, 화엄의 바다를 헤엄쳐 우리는 묵묵히 값진 보물인 불보종찰 통도사를 향해 길을 나선다. 그렇게 다시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의 진리의 길을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 불교신문 주간 ohsim@ibulgyo.com



# 10·27 법난

## 제41주년 추념법회

지난 1980년 10월 27일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은 군인과 경찰 등 3만여 명의 공권력이 전국 5천여 개 사찰을 군화발로 짓밟고 2천여 스님과 불교 관계자들을 연행하고 고문한 한국불교 근현대사에 있어서 최대의 수난사입니다.

올해로 ‘10·27법난’이 자행된 지 어느덧 4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역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우리는 그 고통의 역사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불법적이고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10·27법난’의 아픔을 역사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이에 ‘10·27법난 제41주년 추념법회’를 봉행합니다.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최대 수난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날의 아픔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 10·27법난 추념법회 10월 27일(수)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공연장

문의 | 02-2011-1829(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초청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합니다.  
※추념법회는 유튜브로 생중계 됩니다.